

 <p><b>정치하는엄마들</b> www.politicalmamas.kr</p>	<b>보도자료</b>		
	보도일시	2018. 10. 30. 화	
	담당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	010-9109-8630
배포일시	2018. 10. 30.	총 3매 (별첨 1건)	

## 한유총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검찰고발 기자회견

### - 박용진 의원 <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 파행 등

▲고발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고발인-정치하는엄마들 ▲피고발인-한국유치원총연합회

- 일시 : 2018년 10월 30일(화) 11:00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 (서초동 법원검찰청 삼거리)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1. 조성실 활동가 (여는말, 고발경위)
  2. 류하경 변호사 (고발취지 설명)
  3. (한유총 규탄발언)
  4. 장하나 활동가 (향후 계획)
  5. 기자회견문 낭독

※ 고발장은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 게시 되었습니다. [www.politicalmamas.kr](http://www.politicalmamas.kr)

※ 언론인 여러분, 지난 20일간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및 비영리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활동에 보내주신 관심과 취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단체는 정관 제1장제1조를 통해 단체의 명칭을 ‘정치하는엄마들’로 정한 바 있습니다. 맞춤형에 어긋나지만, 단체의 명칭은 고유명사로서 허용되리라 보고 **향후 기사 작성 시 ‘정치하는엄마들’이 아닌 ‘정치하는엄마들’로 표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유년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유아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꾸준한 관심과 취재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늘(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유총은 지난 10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 조직적으로 난입하여 박용진 의원이 주최한 <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를 파행시킨 바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박용진 의원 주최 토론회를 비롯 총 4건의 정부 주최 토론회를 위력으로 무산시킨 것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주거침입으로 한유총을 형사고발하고, 한유총 대표자에 대해서는 공보공동정범의 죄를 물었다.

□ 이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는 ‘피고발인인 한유총 회원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영리만을 수호할 목적으로 국공립유치원 확충,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제고 등 정부 정책을 막기 위해 정부 주최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폭력적이고 상습적으로 방해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0월 5일 국회 토론회에 한유총 소속 300여명이 아무런 제지 없이 입장한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는 ‘한유총은 수 년 간 상습적으로 위력으로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으나, 누구도 한유총을 고발하거나 처벌하지 않았다. 만약 평범한 학부모들이나 힘없는 시민들이 국회에 쳐들어가서 토론회를 파행시켰다면 면죄부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동안 한유총의 이익과 특권을 지켜준 비호세력들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년간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와 감사적발 된 유치원 명단을 받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등 여러 노력을 했으나, 교육당국은 비공개로 일관하다가 최근 공개 결정을 했다. 지난 7월 법무부가 감사적발 명단을 공개해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교육당국은 학부모의 알 권리를 악의적으로 침해해 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감사결과와 명단을 비공개한 시도교육청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 유아교육 돈벌이로 전락시킨 한유총을 엄마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지난 10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용진 의원과 교육부 공동 주최로 <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사립유치원장들은 토론회 전날부터 박용진 의원에게 전화와 문자폭탄을 보내며 토론회 취소를 요구했다. 토론회가 강행되자 한유총 회원 300여명은 토론회장에 몰려와 집단행동을 벌였고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욕설과 야유를 보내 결국 약 15분 만에 모든 행사를 중단시켰다. 민주적으로 토론을 하자, 발언기회를 주겠다는 박용진 의원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한유총 회원들은 계속 단상을 점거한 채 고성으로 구호를 외쳤다.

박용진 의원은 한유총에 토론회 참여를 제안했지만, 한유총은 이를 거부했고 국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교육부, 교육청, 국회의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집단폭력으로 무력화했다. 이들 300여명이 어떻게 국회에 아무런 제지 없이 무단입장하게 된 것인지 그 경위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평범한 학부모나 힘없는 시민 수백여명이 국회에 난입해서 위력을 행사했다면 이미 경찰에 연행되어 입건되었을 것이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특권과 반칙에 반대하는 시민의 상식과 모든 아이들이 행복과 건강을 지키려는 부모의 마음으로 오늘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한다.

한유총은 지난해에도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제고 등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수차례 위력을 했다.

2017년 7월 21일 대전에서 열린 교육부 주최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 3차 세미나>를 한유총 회원 100여명이 무산시켰다. 이날 오전 한유총은 대전시 모처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3차 세미나 개최를 무산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사립유치원을 말살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출산율 저하 상황에서 유아교육의 공공교육화를 명분으로 국공립을 40%까지 확대하면 사립유치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다른 사립유치원 원장은 “형식적인 설명회와 세미나 개최를 통해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죽이기 명분을 쌓고 있다”면서 “사립을 공공교육화해 국가책임제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의 공공교육화가 아니면 사립유치원은 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실행과 함께 다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유아들을 위한 국가의 교육정책을 저지할 것을 한유총 차원에서 공식화 했고, 정부 주최 세미나를 폭력으로 점거하는 범죄행위를 사전 계획, 실행한 것이다. 범행직후 김득수 전 한유총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을 궁극적으로 폐업하게 유도하는 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한 설명회와 세미나 개최를 반대한다”면서 “3차 설명회 및 세미나를 무산시킨 데 이어 서울에서 열리는 4차 설명회도 원천 봉쇄해 열리지 못하도록 집단행동을 할 것”이라고 범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 계획에 따라 2017년 7월 2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4차 세미나>도 파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정치하는엄마들 회원 6명과 아이들도 참석했고 물리적인 위협과 언어폭력의 피해를 입었다. 성명불상의 한유총 회원 및 관계자 500여명은 4차 세미나 시작 2시간여 전부터 장내를 점거하고 행사 시작을 저지하여 결국 세미나를 무산시켰다. 이들은 공립유치원 확충을 골자로 하는 교육부의 계획안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다음 주까지 수용되지 아니하면 사립유치원 전국 집단 휴원도 불사하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실제 작년 9월에 한유총은 집단 휴원을 예고했고 결국 철회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전국의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특수주거침입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특히 각 범죄행위들은 한유총 차원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단체행동이었으므로, 피고발인 한유총의 대표자는 공모공동정범의 죄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지난 10일 교육위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었다.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들의 등록금이 유치원 원장 및 그 가족들의 사치품 구매 등으로 방만하게 쓰이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한유총은 명단공개 이후 지난 16일 사과문을 발표하였으나 곧바로 박용진 의원과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였다. 최근에는 휴업과 폐업 경고를 하면서 대국민 협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유총이 붙잡고 있는 그 인질은 바로 우리의 영유아들이기 때문에 한유총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끝없이 치솟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영유아를 둔 학부모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서 피고발인 한유총이 가장 약자인 아이들을 불모로 국가지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분식회계와 조세포탈을 저지르면서도 이를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공식적인 세미나와 공청회, 토론회마저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파행시키는 악행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본 사건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한유총은 지난 20일간 국민들을 기만하고, 학부모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다. 위법 여부를 떠난 유아교육자의 자격이 없고,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국공립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휴원 사태에 학부모 피해가 없도록 제정과 인력 투입을 아끼기 말아야 한다. 한유총의 생떼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엄마들과 시민들은 유아교육을 망치자들에게 더 이상 유아교육을 맡길 생각이 없다. 그리고 한유총의 지난 적폐와 온갖 불법 행위들이 끝까지 처벌 받도록 엄마들은 묵묵히 행동하 나갈 것이다.

**2018년 10월 30일**  
**정치하는엄마들**